

韓愈 「進學解」와 柳宗元 「答問」優劣論

— 문장구도분석을 중심으로 —

高光敏*

目 录

1. 들어가며
2. 東方朔 「答客難」과 揚雄 「解嘲」의 구도 분석
3. 柳宗元 「答問」의 구도 분석
4. 韓愈 「進學解」의 구도 분석
5. 나오며

1. 들어가며

대등한 두 세력의 경쟁은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포츠의 라이벌 대결이나 정치 맞수의 토론은 一進一退의 경합이 벌어져 늘 흥미진진하다. 그렇다면 문인들의 글쓰기도 라이벌 대결이 가능할까? 그것이 학생들의 백일장이나 과거시험처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진행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작품 창작의 시대와 장소,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른 두 작품을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도 후대의 비평가들은 간혹 유명한 문인들을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나누곤 하는데, 대부분이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가까워,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긴 하지만 실제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당나라의 韓愈와 柳宗元의 고문 작품은 우열을 나눌 수도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있다. 이들은 모두 唐宋八大家의 일원이며 당나라를 대표하는 문장가들이다. 또한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交遊하였고, 고문 창작에 대해 격려하거나 협조하기도 하였다. 비록 실제로 글쓰기의 대결을 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면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것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韓愈의 「進學解」와 柳宗元의 「答問」·「起廢答」, 韓愈의 「送窮文」과 柳宗元의 「乞巧文」, 韓愈의 「圻者王承福傳」과 柳宗元의 「種樹郭橐駝傳」, 韓愈의 「平淮西碑」와 柳宗元의 「平淮夷雅」 등이 그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韓愈와 柳宗元은 서로의 글쓰기에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다.¹⁾ 그 중에서 韓愈의 「進學解」와 柳宗元의 「答問」은 각각 그들을 대표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²⁾, 무엇보다도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모두 東方朔의 「答客難」과 揚雄의 「解嘲」를 모방하여 辭賦의 행태를 띠고 있으며, 비난에 대한 반박이 주된 내용이어서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 때문에 후대에는 이들의 작품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문장을 놓고 林紓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答問」과 「起廢答」은 모두 揚雄의 「解嘲」의 표현이 있다. 「答問」의 문장은 「進學解」의 恢張함에 미치지 못하지만, 「起廢答」은 대략 재미있다.³⁾

이와 같이 林紓는 문장의 우열을 나누고는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평가일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韓愈와 柳

- 1) 羅聯添은 〈論韓愈古文幾個問題〉의 「韓柳爲文相角」이라는 부분에서 韓愈와 柳宗元의 고문 중 내용과 형식이 유사한 작품을 29부류로 분류하였다. 羅聯添, 『唐代四家詩文論集』, 臺北: 學海出版社, 1996, 139-142쪽.
- 2) 王基倫은 「韓文之體類區分及其意義」에서 후대의 『唐文粹』, 『古文辭類纂』 등 12종 選集類에 실린 韓愈와 柳宗元 문장에 대해 조사하였다. 「進學解」는 12종 중에 12번 실렸고, 「答問」도 2번 실렸다. 이를 근거해 보면 「進學解」와 「答問」 모두 후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문장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王基倫, 『韓愈古文新論』, 臺北: 里仁出版社, 1996, 48-71쪽, 115-116쪽.
- 3) “「答問」及「起廢答」皆「解嘲」語, 「答問」之文, 不及「進學解」之恢張, 「起廢答」略趣.” 林紓, 『韓柳文研究法』, 臺北: 廣文書局有限公司, 1980, 91쪽.

宗元의 작품 중 「進學解」와 「答問」을 대상으로 우열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⁴⁾ 그 평가의 대상은 문장의 구도이며, 구도의 분석과 평가는 章法學의 분석방법에 근거할 것이다. 장법학은 문장의 구도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주로 두 작품이 원텍스트로 삼고 있는 東方朔의 「答客難」과 揚雄의 「解嘲」의 구도를 어떻게 변형했으며 얼마나 다양한 장법을 사용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문장 구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와 장법 활용의 특징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韓愈와 柳宗元 문장의 우열을 가려보고자 한다.

韓愈와 柳宗元의 우열 평가는 비록 두 문장의 구도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그 한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두 작품의 우열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문학 비평의 새로운 방향을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東方朔 「答客難」과 揚雄 「解嘲」의 구도 분석

東方朔의 「答客難」과 揚雄의 「解嘲」은 모두 『文選』 45권 “設論”에 수록되어 있다. 두 편 모두 제목에 ‘賦’자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辭賦의 형식을 취하고 가상의 문답을 통해 ‘懷材不遇’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설의 인물이 자신에게 비난을 가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문답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東方朔의 「答客難」은 設論體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그 형식은 一問一答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첫 단락에서는 객이 東方朔을 비난하는 부분이 나온다.

4) 「答問」과 「起廢答」은 서로 유사한 형식이다. 다만 후대의 대표적인 選集類 12종에 수록된 상황을 보면, 「答問」은 『文苑英華』와 『唐宋文醇』 등 2곳에 수록되어 있으나 「起廢答」은 수록된 바가 없다. 이를 근거로 후대에는 「答問」을 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판단하여 「進學解」와 「答問」을 비교하고자 한다. 王基倫의 앞의 책, 115-116쪽.

①객이 東方朔을 비난하며 말했다. “蘇秦과 張儀는 혼자 萬乘之國의 임금을 상대하였고, 卿相의 지위에 올라 그 은택이 후세에까지 미쳤습니다. ②지금 그대는 大夫로서 선왕의 법도를 닦으며, 성인의 義를 흠모하고 『詩』, 『書』, 百家의 책을 외우는 것이 실로 헤아릴 수가 없으며, 竹帛에 기록하고 입술에 문드러지고 이가 다 빠질 때까지 암송하여 가슴에 품고서 잊지 않으십니다. 배우기를 즐기고 道를 좋아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스스로 지혜와 능력이 세상에 겨룰만한 자가 없다고 여기시니, 학식이 깊고 총명하다고 할 만 합니다. ③하지만 힘을 다하고 충성을 바쳐서 聖帝를 모시며, 수십 년의 긴 세월을 보냈건만, ④관직은 侍郎에 불과하고, 朝列의 위치는 호위병의 자리를 넘지 않습니다. ⑤사람들은 그대가 여전히 행실의 결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제들에게도 몸을 의탁할 수 없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⁵⁾

객의 주장을 보면 “東方朔은 비록 학식이 높고 뛰어나지만 관직이 높지 않으니 행실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뒤에 따라올 東方朔의 대답은 이에 대한 반론이다. 이처럼 주장과 반론, 혹은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한 비판의 형식이면 장법을 立破法이라고 한다.⁶⁾ 「答客難」은 立破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의 단락은 立破의 立에 해당한다. 형식상 먼저 立이 오고 나중에 破를 배치한 先立後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立에서는 東方朔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단락을 장법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5) “客難東方朔曰：“蘇秦，張儀壹當萬乘之主，而身都卿相之位，澤及後世。今子大夫修先王之術，慕聖人之義，諷誦『詩』，『書』，百家之言，不可勝記。著於竹帛，唇腐齒落，服膺而不可釋。好學樂道之效，明白甚矣。自以爲智能海內無雙，則可謂博聞辯智矣。然悉力盡忠，以事聖帝，曠日持久，積數十年。官不過侍郎，位不過執戟，意者尙有遺行耶？同胞之徒，無所容居，其故何也？”蕭統編，『文選』，臺北：中華書局，1995，628쪽.
- 6) 立은 일종의 논점이나 개념을 제기하거나 세우는 것이며, 破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陳滿銘은 立破法을 “「立」과 「破」를 첨예하게 대립시킴으로써, 토론하려는 주제의 옳고 그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법이다(將「立」與「破」之間形成針鋒相對使得所欲探討的主題更加是非分明的一種章法)”라고 설명했다. 陳滿銘，『章法學綜論』，臺北：萬卷樓，2000，29쪽.

立	因	反		①객이 東方朔을 비난하며 말했다. ~ 후세에까지 미쳤습니다.
		正	揚	②지금 그대는 ~ 학식이 깊고 총명하다고 할 만 합니다.
			抑	③하지만 힘을 다하고 ~ 긴 세월을 보냈건만
			抑	④관직은 侍郎에 불과하고 ~ 호위병 자리를 넘지 않습니다.
	果		⑤사람들은 그대가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立은 다시 因果-正反-抑揚 등의 장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因果法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장법이며⁷⁾ 正反法은 서로 상반되는 正과 反의 두 소재를 사용하여 反으로 正을 부각시키는 장법이다.⁸⁾ 또한 抑揚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칭찬과 비판으로 연결된 장법이다.⁹⁾ 위의 단락은 ‘관직이 낮은 것(因)’을 근거로 ‘행실에 문제가 있음(果)’을 지적한다. 또한 관직이 낮은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옛날 뛰어난 사람들(反)’과 지금 ‘東方朔의 뛰어나지 못함(正)’을 正反으로 대비함으로써 東方朔의 뛰어나지 못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東方朔의 뛰어나지 못한 점은 抑揚法을 사용하여, 먼저 東方朔을 칭찬하다가 뒤에 비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록 짧은 단락이지만 立 안에 因果, 正反, 抑揚의 다양한 장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장에 굴곡을 형성하였고 문맥이 전환되는 구도를 만들었다. 다만 立破의 핵심은 立과 破의 극명한 대립이며,¹⁰⁾ 立과

7) 因果法은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 조합되어진 장법을 말한다(由一因一果所組合而成的一種章法).” 陳滿銘의 앞의 책, 23쪽.

8) 正反法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나란히 배열하여 강하게 대비시킴으로써 반대되는 재료를 통해 그 의미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주제의 설득력과 감화력을 높이는 장법이다.(將極度不同的兩種, 或兩種以上的材料並列起來, 作成強烈的對比, 藉反面的材料襯托出正面的意義, 以增強主旨的說服力與感染力的一種章法)” 陳滿銘의 앞의 책, 28쪽.

9) 仇小屏의 『深入課文的一把鑰匙』에서는 抑揚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抑은 비판이며 揚은 칭찬이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칭찬과 비판을 사용했다면 이는 抑揚法을 사용한 것이다.(抑就是貶抑, 揚就是褒揚, 當我們針對一個人物或一件事情, 有所貶抑或褒揚時, 就是運用了抑揚法)” 仇小屏, 『深入課文的一把鑰匙』, 臺北: 萬卷樓, 2002, 305쪽.

10) 仇小屏은 『篇章結構類型論』에서 “立과 破은 反과 正의 관계처럼 대립적이다. 立破法이 正反法에서 독립해 나온 것은 그 목적이 「첨예한 대립」을 강조하기 위함이다.(立與破是相對立的, 就好像是反與正一般, 因此我們說立破法是從正反法中獨立出來的, 目的在於強

破가 극명하게 대립하면 할수록 문장의 미감이 살아나는 장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立에서의 강한 비난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내용이 東方朔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東方朔에 대한 비판은 단지 “관직은 侍郎에 불과하고 지위는 執戟에 지나지 않습니다.”에 그칠 뿐이다. 진정한 비난이라기보다 뒤의 반론을 이끌어 내는 목적으로 쓰인 듯하다. 이처럼 立이 강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破의 부분도 더불어 약해지기 때문에 立破의 대립은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강한 미감도 형성되지 않는다.

다음은 破의 부분을 보도록 하자. 破는 비난에 대한 東方朔의 반론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매우 길고 장황하다. 그 핵심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동방선생은 길게 탄식하고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니,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 ②비록 그렇지만 어찌 修身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 ③지금 가장 어리석은 지혜로서 處士를 비난한다면 비록 공지에 물리지 않고자 해도 그럴 수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은 權變을 모르고 결국 큰 도를 이해 못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¹¹⁾

위의 핵심 내용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난 修身한다’, ‘이러한 것을 근거해 보면 당신의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장법 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破	因	反	①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正	②하지만 나는 修身에 힘쓴다.
	果		③그러니 당신의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調出它「針鋒相對」的特質)라고 하였다. 때문에 立破의 핵심은 立과 破의 첨예한 대립이며 대립이 강렬할수록 立破의 미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仇小屏, 『篇章結構類型論』, 臺北: 萬卷樓, 2000, 456쪽.

11) “東方先生喟然長息, 仰而應之曰, “是故非子之所能備, 彼一時也, 此一時也, 豈可同哉 ~ 雖然安可以不務修身乎哉 ~ 今以下愚而非處士, 雖欲勿困, 固不得已. 此適足以明其不知權變而終惑於大道也.” 『文選』 45卷.

그럼 여기서 正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기로 하자.

① 비록 그렇지만 어찌 修身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② 『詩經』에서는 ‘집 안에서 鐘을 치면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네’, ‘학이 굵어진 연못에서 울면 그 소리가 하늘까지 들리네’라고 하였습니다. ③ 修身한다면 어찌 榮達하지 못함을 걱정하겠습니까? ④ 太公은 몸소 仁義를 실천하여, 72세에 文王과 武王에게 등용되어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齊나라에 봉해진 뒤, 700년이 지나도록 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⑤ 이것이 선비가 밤낮으로 노력하며 학문을 닦고 민첩히 행동하며 감히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⑥ 예컨대 저 할미새가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우는 것과 같습니다. ⑦ 전하는 말에 따르면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없애지 않고, ⑧ 땅은 사람이 험함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넓음을 거두지 않으며, ⑨ 군자는 소인이 이리쿵저리쿵 비난한다고 해서 자신의 행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⑩ 하늘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고, ⑪ 땅에는 일정한 형상이 있듯이, ⑫ 군자에게도 일정한 행실이 있습니다. 군자는 그 일정함을 행하고, 소인은 功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⑬ 『시경』에 이르길 ‘禮義에 합당하면, 어찌 타인의 말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⑭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⑮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습니다. ⑯ 면류관에 주옥 장식을 드리운 것은, 밝음을 막는 것이며, ⑰ 黈纆으로 귀를 덮는 것은, 귀 밝음을 막는 것입니다. ⑱ 눈이 밝아도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귀가 밝아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⑲ 큰 덕을 추천하고,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미덕이 갖추어지길 바라지 않는 뜻입니다. ⑳ 굵은 것을 곧게 펴는 스스로 그리할 수 있게 하고, 너그럽게 그를 대하여 스스로 구할 수 있게 하고, 헤아리되 스스로 구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㉑ 대개 聖人の教化는 이와 같은 것이니 스스로 할 수 있길 바란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민첩하고 넓어지게 됩니다.¹²⁾

12) “雖然, 安可以不務修身乎哉! 『詩』曰: ‘鼓鍾于宮, 聲聞于外’, ‘鶴鳴九臯, 聲聞于天’ 苟能修身, 何患不榮. 太公體行仁義, 七十有二, 乃設用於文武, 得信厥說, 封於齊, 七百歲而不絕. 此士所以日夜孳孳, 修學敏行而不敢怠也. 譬若鶴鶴, 飛且鳴矣. 傳曰: ‘天不爲人之惡寒而輟其冬, 地不爲人之惡險而輟其廣, 君子不爲小人之匈匈而易其行.’ 天有常度, 地有常形, 君子有常行. 君子道其常, 小人計其功. 『詩』云 ‘禮義之不愆, 何恤人之言?’ 水至清則無魚, 人至察則無徒. 冕而前旒, 所以蔽明, 黈纆充耳, 所以塞聰. 明有所不見, 聰有所不聞, 舉大德, 赦小過, 無求備於一人之義也. 枉而直之, 使自得之, 優而柔之, 使自求之. 揆而度之, 使自索之. ‘蓋聖人之教化如此, 欲其自得之, 自得之, 則敏且廣矣.’ 『文選』 45卷.

위 문장을 장법 구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正	果		①비록 그렇지만, 어찌 修身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因1	賓1	②『詩經』에서 ~ 소리가 하늘까지 들리네'라고 하였습니다.	
		主	果	③修身 한다면 어찌 榮達하지 못함을 걱정하겠습니까?
			因	④태공은 몸소 인의를 실천하여, ~ 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果	⑤이것이 선비가 밤낮으로 ~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賓2	⑥예전대 저 할머니가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우는 것과 같습니다.		
	因2	賓1	⑦전하는 말에 하늘은 ~ 겨울을 없애지 않고	
		賓2	⑧땅은 사람이 험함을 ~ 그 넓음을 거두지 않으며	
		主	⑨군자는 소인이 ~ 행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賓3	⑩하늘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고	
		賓4	⑪땅에는 일정한 형상이 있듯이	
		主	⑫군자에게도 일정한 행실이 있습니다. 군자는 그 일정함을 행하고, 소인은 功을 계산합니다.	
		賓5	⑬『시경』에 이르길 '禮義에 합당하면, 어찌 타인의 말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賓6	⑭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主	⑮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습니다.	
		賓7	⑯면류관에 주옥 장식을 드리운 것은, 밝음을 막는 것이며	
		賓8	⑰黈纆으로 귀를 덮는 것은, 귀 밝음을 막는 것입니다.	
	賓9	⑱눈이 밝아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귀가 밝아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因3	目1	⑲큰 덕을 추천하고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한사람에게 모든 미덕이 갖추어지길 바라지 않는 뜻입니다.	
		目2	⑳굽은 것을 곧게 펴에 스스로 그리할 수 있게 하고 ~ 스스로 구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凡	㉑대개 聖人の 教化는 이와 같은 것이니 스스로 할 수 있길 바란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민첩하고 넓어지게 됩니다.	

위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正 속에 因果가 사용되었고, 다시 그 속에 賓主와 凡目이 사용된 형태이다. 賓主法은 보조 재료인 賓으로 주재료인 主를

부각시키는 장법이며¹³⁾, 凡目法은 총괄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로 연결된 장법이다.¹⁴⁾ 因果에서 맺는 ‘나는 修身에 힘쓴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모두 세 개의 因으로 설명하였다. 그 중 因2는 ‘군자는 세태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항구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9개의 賓을 사용하였다. 이 9개의 賓은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지루한 반복이 계속 되는 인상을 받는다. 賓主는 배경을 통해 주제를 낚시 설명하는 장법으로 賓의 사용은 주제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賓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주장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 여기서는 賓主의 과도한 사용으로 논리의 근거의 제시보다는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며 결국은 문장이 산만해지는 이유가 된다. 만약 賓의 수를 줄이면 因의 분량이 짧아지게 되어 因果의 구도가 보다 균형 있게 될 것이다.

이렇듯 「答客難」은 먼저 立을 제시하고 후에 破를 배치한 先立後破의 형식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장법을 활용하였으나, 立 부분에 비난이 뜬금없이 불쑥 튀어나온다는 점과 그 비난이 매우 미약하여 立破의 대립이 첨예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또한 破의 장법 구도에 중복이 심하여 산만하게 느껴지며 이에 따라 破의 논리성이 결여된다. 더불어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학식을 드러낸다는 허점을 남기고 있다.

다음은 揚雄의 「解嘲」이다. 「解嘲」는 「答客難」에 없는 서문을 넣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答客難」의 一問一答과 다르게 二問二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다 曲盡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解嘲」 역시 立破法을 사용하였고 先立後破를 중복한 立破立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賓主法은 “보조 재료인 賓을 활용하여 주제료인 主를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主旨를 전달하는 장법의 일종이다(運用輔助材料(賓), 來凸主要材料(主), 從而有力地傳達出主旨的一種章法)” 陳滿銘의 앞의 책, 28쪽.

14) 凡目法은 “동일한 사건, 경물, 감정, 이치를 서술할 때, 총괄과 지엽을 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일종의 방법이다(在敘述同一類事, 景, 情, 理時, 運用了「總括」與「條分」來組織篇章的一種章法)” 陳滿銘의 앞의 책, 27쪽.

立1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破1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
立2	명성을 얻는데 『太玄』이 꼭 필요한가?
破2	나는 『太玄』이 필요하며 묵묵히 『太玄』을 지키겠다.

위의 형태는 立破立破를 통해 비난과 변론을 중복시켜 문장의 굴곡과 흥미를 더해주고 있어, 「答客難」에 비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解嘲」의 立1 부분을 보도록 하자.

①객이 揚雄을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듣기에 옛날 선비들은 사람됨의 근본을 갈고 닦아 태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위로는 임금을 존경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며, 人君의 홀을 나누어 갖고, 人君이 준 작위를 받으며, 人君의 符節을 품고, 人君의 祿을 나누어 가지며, 청색과 자색의 印綬를 늘어뜨리고 붉은 색으로 수레를 장식한다고 들었습니다. ②지금 그대는 다행히도 治世를 만나고 조정에서 入朝하여 여러 賢者들과 나란히 금문을 지나고 옥당에 오른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③하지만 기이한 계책을 내어, 위로는 군주에게 유세하거나 아래로 공경과 토론한 적이 없고, 번쩍이는 눈빛과 번개 같은 혀로 종횡무진 토론하며 論者들을 제압한 적도 없습니다. ④다만 묵묵히 『太玄』 오천 자를 지어 나무와 가지가 퍼져나가듯 수십만 자를 쓰셨습니다. 이치가 깊은 것은 黃泉까지 미치고, 높은 것은 蒼天에 이르며, 큰 것은 元氣를 품고, 예리한 것은 좁은 틈 사이를 들어갑니다. ⑤그런데도 그대의 관직은 侍郎에 불과하고, 겨우 給事黃門에 발탁되었으니,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쫓는 玄이 여전히 白인 것은 아닙니까? 어찌하여 官運에서 밀려난 것입니까?”¹⁵⁾

15) “客嘲揚子曰: ‘吾聞上世之士, 人綱人紀, 不生則已, 生必上尊人君, 下榮父母, 析人之珪, 僭人之爵, 懷人之符, 分人之祿, 紆青拖紫, 朱丹其轂. 今吾子幸得遭明盛之世, 處不諱之朝, 與羣賢同行, 歷金門, 上玉堂有日矣. 曾不能畫一奇, 出一策, 上說人主, 下談公卿, 目如耀星, 舌如電光, 一從一橫, 論者莫當. 顧默而作『太玄』五千文, 枝葉扶疎, 獨說數十餘萬言, 深者入黃泉, 高者出蒼天, 大者含元氣, 細者入無間. 然而位不過侍郎, 擢纔給事黃門. 意者玄得無尙白乎? 何爲官之拓落也?’” 『文選』 45卷.

이것을 장법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立	反	①객이 揚雄을 조롱하며 말했다. ~ 수레를 장식한다고 들었습니다.
	正	揚 ②지금 그대는 다행히도 治世를 ~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抑 ③하지만 기이한 계책을 ~ 論者들을 제압한 적도 없습니다.
		揚 ④다만 묵묵히 『太玄』 오천 자를 ~ 틈 사이를 들어갑니다.
		抑 ⑤그런데도 지위는 侍郎에 ~ 관운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立 안에 正反法과 抑揚法만을 사용하여 「答客難」에 비해 다소 단조로울 수 있다. 하지만 「答客難」과 달리, 客의 비난 강도가 강해졌으며, 抑揚法을 반복하면서 비난 중에 적절히 자신에 대한 칭찬도 하고 있다. 抑揚의 분량 역시 대등하여 전체적으로는 장법 사용의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 이는 「答客難」에 비해 발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破 중에서 특히 破2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立2에서는 “立身揚名을 위해 『太玄』은 불필요하다”라는 비난을 했고, 이에 대해 揚雄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다.

①揚雄이 말했다. “范雎는 위나라에 망명할 때, 옆구리와 허리뼈가 부러져 오라를 면했고, 움츠리고 자루에 들어가서 萬乘之國의 군주를 격노하게 하고 涇陽君과 소원하게 하며 穰侯를 막아 그 자리를 대신하였으니, ②이는 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③蔡澤은 山東의 필부로 못생긴 외모에 콧물과 침을 흘렸지만 서쪽으로 진나라에 가서 재상을 알현하고 목을 막고 기를 눌러 등을 두드리고는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④이는 때에 맞았던 것입니다. ⑤천하가 안정되어 세상이 태평할 때, 낙양에 도읍을 정했는데 斐敬은 수레를 끌다 세 치의 혀로 계책을 세워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게 하였는데, ⑥이는 시의 적절했던 것입니다. ⑦五帝가 제도를 만들고 三王의 예의를 전하여 百世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叔孫通은 전쟁터에서 몸을 일으켜 갑옷을 벗고 창을 버리고 마침내 군신의 의례를 제정하였으니, ⑧이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⑨ 『呂刑』이 폐해졌고, 秦法이 가혹하여 한 왕조에서 법령을 만들에 蕭何가 법률을 제정하였으

니 ⑩이는 마땅했던 것입니다. ⑪그러므로 소하의 법률을 唐虞의 시기에 제정한다면 어긋나는 것이고, 叔孫通의 의례를 夏, 殷의 시대에 만든다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婁敬의 계책을 成王, 周公의 시기에 세운다면 어긋날 것이고, 范雎와 蔡澤의 주장을 金日磾, 張安世, 許光漢, 史恭, 史高에게 펼치는 것은 미친 짓이 될 것입니다. ⑫저 蕭何在가 규칙을 제정하고 曹參은 이를 따랐으며, 留侯는 계책을 세우고 陳平은 기이함을 내어 공은 태산과 같아 그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⑬비록 그 사람의 지혜가 충분하더라도, 또한 행할 수 있는 때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시기에 행한다면吉할 것이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한다면 역시凶할 것입니다. ⑭저 藺相如가 章臺에게 공을 얻은 것, 네 명의 늙은이가 南山에서 칭송받은 것, 公孫弘이 金馬門에서 업적을 세운 것, 驃騎將軍 霍去病이 祁連山에서 업적을 세운 일, 司馬相如가 몰래 卓氏에게서 재물을 취한 것, 東方朔이 고기를 잘라 아내에게 바친 일이 있는데 ⑮저 자신이 저들처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묵묵히 나의 『太玄』을 지킬 뿐입니다.”¹⁶⁾

이것을 장법 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破2	因	目1	因	果	①揚雄이 말했다. ~ 그 자리를 대신하였으니,
				因	②때를 만났던 것입니다.
				果	③蔡澤은 山東의 필부로 ~ 그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因	④이는 때에 맞았던 것입니다.
				果	⑤천하가 안정되어 ~ 국도를 장안으로 옮기게 하였는데,

16) “楊子曰, ‘范雎, 魏之亡命也, 折脅摺脇, 免於徽索, 翕肩蹈背, 扶服入囊, 激仰萬乘之主, 介涇陽抵穰侯而代之, 當也. 蔡澤, 山東之匹夫也, 顛顛折頰, 涕唾流沫, 西掛彊秦之相, 搯其咽而亢其氣, 捫其背而奪其位, 時也. 天下已定, 金革已平, 都於洛陽, 婁敬委輅脫輓, 掉三寸之舌, 建不拔之策, 舉中國徙之長安, 適也. 五帝垂典, 三王傳禮, 百世不易, 叔孫通起於枹鼓之間, 解甲投戈, 遂作君臣之儀, 得也. 「呂刑」靡敝, 秦法酷烈, 聖漢權制, 而蕭何造律, 宜也. 故有造蕭何之律於唐虞之世, 則諱矣, 有作叔孫通儀於夏殷之時, 則惑矣. 有建婁敬之策於成周之世, 則乖矣, 有談范、蔡之說於金、張、許、史之間, 則狂矣. 夫蕭規曹隨, 留侯畫策, 陳平出奇, 功若泰山, 響若坻隤, 雖其人之膽智哉, 亦會其時之可爲也. 故爲可爲於可爲之時, 則從, 爲不可爲於不可爲之時, 則凶. 若夫藺生收功於章臺, 四皓采榮於南山, 公孫創業於金馬, 驃騎發跡於祁連, 司馬長卿竊資於卓氏, 東方朔割炙於細君. 僕誠不能與此數子並, 故默然獨守吾『太玄』.” 『文選』 45卷.

			因	⑥이는 시의 적합했던 것입니다.
			果	⑦五帝가 제도를 만들고 ~ 군신의 의례를 제정 하였으니
			因	⑧이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果	⑨『呂刑』이 폐해졌고 ~ 蕭何가 법률을 제정하였으니
			因	⑩이는 마땅한 것입니다.
	果	⑪그러므로 蕭何의 법률을 ~ 미친 것이 될 것입니다.		
	目2	⑫저 蕭何가 규칙을 제정하고 ~ 그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凡	⑬비록 그 사람의 지혜가 충분하더라도, ~ 실패할 것입니다.		
	目3	⑭저 藺相如가 章臺에게 공을 얻은 것, ~ 아내에게 바친 일이 있는데		
	果	⑮저 자신이 저들처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묵묵히 나의 『太玄』을 지킬 뿐입니다.”		

『太玄』이 立身揚名에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破2에서는 『太玄』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때문에 破2에서는 이유를 제시하는 因果-凡目-因果-因果 등의 장법을 사용하였다. 破2의 장법 활용을 보면, 因果와 凡目的 두 종류만을 사용하여 단조로운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因果法을 총 8회 사용하여 중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장법활용의 세부적인 것을 보면, 우선 첫 번째 因果 안에는 凡目法을 사용하였다. 凡에서는 '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행해야 한다'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目1, 目2, 目3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도 目的 사용에 중복이 보인다. 凡의 총괄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사례(目)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례가 너무 많거나, 유사한 사례의 나열이라면 오히려 지루하거나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 目1, 目2, 目3에서 사용된 范曄, 蔡澤, 婁敬, 叔孫通 등의 이야기는 모두 역사의 근거를 둔 典故들로, 유사한 사례가 나열되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典故의 나열로 立論의 근거를 확고히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博識을 과시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는 『答客難』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目1에서 사용된 因果法은 먼저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원인을 제시하는 '先果後因'의 구도가 총 5회 반복되는데, 이러한 반복으로 인해 변화 없는 단조로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揚雄의 「解嘲」는 東方朔의 一問一答을 변형하여 二問二答으로 만들어 立破法의 변화를 주었으며, 立에서의 비판을 강하게 함으로써 立破의 강한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장법 활용의 단조로운 중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典故를 나열한 점은 「答客難」과 유사하다.

3. 柳宗元 「答問」의 구도 분석과 특징

柳宗元의 「答問」 역시 立破法을 사용하였다. 「答問」은 외형적으로 二問二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解嘲」와 동일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解嘲」의 立破立破의 형태가 아니다. 二問二答의 핵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問1	선생님은 어찌하여 관운에 밀려 쫓겨났습니까?
答1	그대의 이야기는 일부분 틀립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소?
問2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答2	나는 지금 모습에 만족합니다.

비록 二問二答의 형식이지만 問2는 단지 答2를 끌어내는 문구에 불과하며 答2는 答1의 부연설명이므로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一問一답이며, 앞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뒤에서 반론을 가하는 先立後破로 봐야 할 것이다. 우선 立의 부분을 보도록 하자

①누군가 유선생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옛것을 공부하는 분의 모습이 심합니다. ②그러나 治世에도 뜻을 펼치지 못하시고, 죄를 지어 버려져 숨어 지내십니다. 친구는 모두 흠어지고 친척들은 창피해 하며, 평생토록 흠모하던 자는 편지를 없애 그 흔적을 지웁니다. 남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가르치셨지만, 천한 위치로 떨어지니 수많은 비방을 받으십니다. 선생을 욕하는 자들은 거리낄 것이 없고, 선생을 능멸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

습니다. ③선생께서는 인사를 받으시면 눈을 돌리시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으로 겁내시며, 수시로 초야를 다니시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④어찌 그리 못나셨습니까? ⑤오늘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들을 보면, 모두가 높이 올라 재능을 펼치고 저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니, 그 발길은 하늘까지 이어지고 그 세력이 널리 퍼져, 무리를 이루고 줄지어 다닙니다. 좌우에서는 高談峻論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문간을 가득 메우고, 말 한 마디만 하여도 빛이 나고 번쩍입니다. 이 어찌 대단하지 않습니까? ⑥선생께서는 비록 古書를 읽어 스스로 이치와 도리를 알며 일의 핵심을 안다고 하시지만, ⑦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이토록 어긋나시는군요! 낭패를 겪고 쫓겨나셨으니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겠습니까?”¹⁷⁾

이를 장법 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立	正	揚		①누군가 유선생에게 물었다. “~옛것을 공부하는 분의 모습입니다.
		抑	因	②그러나 治世에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 벌을 받지 않습니다.
			果	③선생께서는 인사를 받으시면 ~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反			④어찌 그리 못나셨습니까?
	正	揚		⑤오늘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들을 보면, ~ 대단하지 않습니까?
		抑		⑥선생님께서는 비록 古書를 읽어 ~ 의 핵심을 안다고 하시지만, ⑦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위와 같이 立에서는 立破-正反-抑揚-因果 등 다양한 장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전환과 굴곡을 주고 있다. 이는 「解嘲」의 단조로운 장법 활용에서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立破, 抑揚, 正反 등 양자가 대립되는 장법을 주로 사용하

17) “有問柳先生者曰：‘先生貌類學古者，然遭有道不能奮厥志，獨被罪辜，廢斥伏匿。交遊解散，羞與爲戚，生平嚮慕，毀書滅跡。他人有惡，指誘增益，身居下流，爲謗藪澤。罵先生者不忌，陵先生者無諱。遇揖日動，聞言心惕，時行草野，不知何適。獨何劣耶？觀今之賢智，莫不舒翹揚英，推類援朋，疊足天庭，魁鬪恢張，羣驅連行。奇謀高論，左右抗聲，出入翕忽，擁門填局，一言出口，流光垂榮。豈非偉耶？先生雖讀古人書，自謂知理道，識事機，而其施爲若是其悖也。狼狽擯謬，何以自表於今之世乎？’” 柳宗元撰，楊家駱主編，《柳河東全集》，臺北：世界書局，1999，364-365쪽.

여客的 柳宗元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正反正 구도 속에서 두 개의 正과 그 안에 있는 각각의 抑이 柳宗元에 대한 비판의 내용인데, 그 분량이 많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판의 강도 역시 매우 높다. 立에서의 비난은 「答客難」과 「解嘲」에서 「答問」에 이르러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立에서의 이러한 강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이와 유사한 강렬한 답변(破)을 이끌어 立破의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한 비난과 다양한 장법 활용은 「答客難」과 「解嘲」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答2, 즉 破의 후반부 내용을 보자

①선생이 말했다. “제가 어릴 때 학문하면서 스승님의 학설에 근본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古書를 믿어 모든 일이 모두 쉽다고 여겼으며, 그 생각을 꺾지 않고 당시 당면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입을 열어 말하고 눈을 감아 쉬며, 남달리 행하고 넘어져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쁨과 화를 숨기지 못하고 曲直을 따지지 못했으며, 그물에 달려들고 함정에 뛰어들며 좌절과 곤경을 당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고 어긋나기가 이처럼 심했습니다. ②그러니 또 어찌 그대의 가르침을 받들고 두터운 덕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③지금의 세상에서는 재주와 잘못을 속일 수 없으며 현명하고 어리석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④顯達한 자들은 그 덕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넓고 깊으며 단정하고 단단하고 밝으며, 두루 갖춰 함양하여 道와 함께 합니다. ⑤그러나 저는 기울어지고 얇고 좁고 편벽하며, 경박하고 시끄러워 흠을 만들고 액운에 빠졌으니, ⑥실로 손과 발을 아무리 놀려도 그들의 자취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⑦그들의 이치를 보면, 그 시책은 현명하고 생각은 깊으며, 세심하게 분석하고 깊이 궁리하며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고금을 비교하여 헤아립니다. ⑧그러나 저는 싸이고 막히고 안목도 좁고 미혹되었으며, 이상하고 괴이한 것을 탐구하며 외진 곳에 숨겨진 것이나 찾아내며, 아슬아슬 두근두근, 끝내는 자신을 해치고 화를 불렀습니다. ⑨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보며 용기를 내어 그들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⑩그들의 학문은 핵심과 맥락을 총망라하고 중황으로 넓게 혼합하며, 하늘의 旋回와 땅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귀신과 신령의 조화에 두루 통했습니다. ⑪그러나 저의 학문은 단지 공허하고 疏略하고 분산되고 비어있으며, 길에서 몰래 들은 것이며, 시끄럽기만 하고 우둔하여 갈 곳을 모릅니다. ⑫그

러니 실로 고개 들고 혀를 놀려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⑬그들의 문장은 모두가 넓디넓고 찬란하며 음양이 어우러지며 멀리 해와 달과 별 빛 같고 제왕의 풍모를 녹여 담았습니다. ⑭그러나 저의 글은 질박하고 꺾일듯기만 하고, 무덤이 여기저기 솟은 듯하며, 털과 실처럼 겨우 이어지며 그 사이에 먼지와 오점이 끼어듭니다. ⑮그러니 실로 아무리 생각 하여 글귀를 찾아 뛰어넘어도 그들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⑯이 네 가지가 뚜렷이 차이나니, 어린아이나 계집아이조차도 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압니다. ⑰거기에다 또 죄에 묶이고 굴레에 매였는데, ⑱그대가 이것으로 저를 밀어 붙이니 이 역시 잔인하지 않습니까? ⑲또한 白羲와 駮耳 같은 준마가 康莊의 큰길을 나서면, 달리는 별을 쫓고 회오리에 앞서는데, ⑳절뚝발이 나귀는 진흙 발을 나오지도 못합니다. ㉑黃鐘과 元間같은 악기로 淸廟의 雅樂을 연주할 때면, 천지를 울려대고 하늘과 땅의 신들을 감동시키는데, ㉒鳴鳴같은 시원찮은 노래는 마을에도 들이지 못합니다. ㉓西施와 毛嬙 같은 미인이 후궁을 걸으면 아침 태양처럼 빛나고 떠가는 구름처럼 환한데, ㉔無鹽 같은 추녀는 마을에서조차 쫓겨납니다. ㉕蛟龍이 天池에서 솟아오르면 천하를 가득 채우고 만물에 恩澤을 내리는데, ㉖새우와 거머리는 한 자 물속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㉗탁월하고 거침없는 선비가 治世를 만나면 지혜와 재능을 사용하여 공과 위업이 빛나는데, ㉘작고 보잘것없이 절뚝거리는 존재는 잊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실로 제 몫입니다. ㉙그런데 그대는 또 왜 저를 탓하십니까? ㉚또한 험난함과 역운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는 것이 烈士의 뜻이요, 불가능한 줄 알아 이내 멈추는 것이 군자의 일입니다. ㉛제가 장차 그것을 흠쳐 생을 마치려하는 것, 그것 역시 팬찮지 않겠습니까?"¹⁸⁾

18) “先生曰: ‘僕少嘗學問, 不根師說, 心信古書, 以爲凡事皆易, 不折之以當世急務, 徒知開口而言, 閉目而息, 挺而行, 躡而伏, 不窮喜怒, 不究曲直, 衝羅陷穿, 不知顛踣, 愚意狂悖, 若是甚矣. 又何以恭客之教而承厚德哉? 今之世工拙不欺, 賢不肖明白, 其顯進者, 語其德, 則皆茫茫深闊, 端貞鯁亮, 苞并涵養, 與道俱往. 而僕乃蹇淺窄僻, 跳浮囁嚅, 抵瑕陷厄, 固不足以越起批振而追其跡, 舉其理, 則皆謀明淵沉, 剖微窮深, 劈析是非, 校度古今. 而僕乃緘錮塞, 耗眊窒惑, 扶異探怪, 起幽作匿, 攸攸恤恤, 卒自禍賊, 固不足以睚盱激昂而效其則, 言其學, 則皆揚攬羅絡, 橫豎雜博, 天旋地縮, 鬼神交錯, 而僕乃單庸撇孛, 離踈空虛, 竊聽道塗, 顯囂蒙愚, 不知所如, 固不足以抗顏搖舌而與之俱. 稱其文, 則皆汗漫輝煌, 呼噓陰陽, 轆轤三光, 陶鎔帝皇. 而僕乃朴鄙艱澁, 培塿滌滌, 毫聯縷緝, 塵出塊入, 固不足以據擗踴躍而涉其級. 茲四者懸判, 雖庸童小女, 皆知其不及, 而又裹以罪惡, 纏以羈縶, 客從而擠之, 不亦忍乎? 且夫白羲, 駮耳之得康莊也, 逐奔星, 先飄風, 而跛驢不出泥滓. 黃鐘, 元間之登淸廟也, 鏗天地, 動神祇, 而鳴鳴咬哇, 不入里耳. 西子, 毛嬙之蹈後宮也, 敵朝日, 煥浮雲, 而無塩逐於鄉里. 蛟龍之騰於天

위의 내용을 장법 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破1	因1	因		①선생이 말했다. “~ 어긋나기가 이처럼 심했습니다.	
		果		②두터운 덕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因2	凡		③지금의 세상에서는 ~ 분명히 드러납니다.	
		目1	反	④현달한 자들은 ~ 함양하여 道와 함께 합니다.	
			正	⑤그러나 저는 기울어지고 ~ 역운에 빠졌으니	
		果		⑥실로 손과 발을 ~ 자취를 따를 수 없습니다.	
		目2	反	⑦그들의 이치로 말하자면 ~ 비교하여 해아립니다.	
			正	⑧그러나 저는 싸이고 막히고 ~ 화를 불렀습니다.	
		果		⑨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 흉내 낼 수 없습니다.	
		目3	反	⑩그들의 학문으로 말하자면 ~ 두루 통했습니다.	
			正	⑪그러나 저의 학문은 ~ 우둔하여 갈 곳을 모릅니다.	
		果		⑫그러니 실로 ~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目4	反	⑬그들의 문장으로 말하자면 ~ 풍모를 녹여 답습니다.	
			正	⑭그러나 저의 글은 ~ 오점이 끼어듭니다.	
		果		⑮그러니 실로 ~ 그들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凡		⑯이 네 가지가 뚜렷이 ~ 미치지 못함을 압니다.	
		因3			⑰거기에도 또 죄에 묶이고 굴레에 매였는데,
		果			⑱그대가 이것으로 ~ 잔인하지 않습니까?

객은 柳宗元의 실패를 근거로 “어찌 그리 못났습니까?(獨何劣耶)”,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何以自表於今之世乎)”라는 비난을 가하였고, 柳宗元은 이에 대해 반론(破)을 제기하고 있다. 破에서는 因果-凡目-賓主-正反 등 다양한 장법을 사용하여, 「答客難」, 「解嘲」에 비해 장법 활용이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중복이 많다. 우선 破가 모두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 즉, 破1에서는 ‘나는 진정 世人을 쫓아 갈 수 없으니 나에게 그런 것을

淵也, 彌六合, 澤萬物, 而蝦與蛭不離尺水. 卓詭倜儻之士之遇明世也, 用智能, 顯功烈, 而塵眇連蹇, 顛頓披靡, 固其所也. 客又何怪哉? 且夫一陟險陌懲而不再者, 烈士之志也. 知其不可而速已者, 君子之事也. 吾將竊取之以沒吾世, 不亦可乎?” 『柳河東全集』, 365-367쪽.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破2에서는 '본래 보잘것없고 실패가 많으니 그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은 틀렸다'. 破3에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지금처럼 현실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破를 세 개로 구분하였지만, 사실 破1과 破2는 동일한 내용이다. 破1은 자신과 세인의 능력이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고, 破2에서는 이것을 유사한 사건과 사물을 인용하여 재차 설명하고 있다. 만약 破2를 전체적으로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줄인다면 보다 정제된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破2의 중복으로 전체 문장의 흐름이 늘어지는 느낌을 준다. 두 번째로, 세 개의 破는 모두 동일하게 因果를 사용하고 있으며 破1에 사용된 因果는 '因1因2因3果'의 형태로 因을 세 차례 중복하고 있다. 이때, 因1과 因2는 모두 '자신과 世人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이므로 중복을 면할 수 없다. 또한 因2에서는 凡目を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目を 「덕(德)」, 「이치(理)」, 「학문(學)」, 「문장(文)」 등 모두 4개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目에서 사용한 장법 유형은 다음과 같다.

目	因	反	세상 사람들의 뛰어난
		正	나 자신의 부족함
	果		그래서 나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

위와 같은 형태가 네 차례 반복되고 있어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破2에 사용된 賓主法은 하나의 主를 수식하기 위해 4개의 賓이 배치되어 賓主구도의 균형을 잃게 하였다. 더욱이 이 4개의 賓은 모두 典故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主의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특징은 「答客難」, 「解嘲」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答問」의 가장 마지막 단락은 「答問」의 핵심 내용을 다시 부연하고 있어 여전히 중복의 느낌을 주고 있다.¹⁹⁾

19) “그리고 노래하였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修養하시고, 우임금과 대신 益은 근심하셨으니, 유능한 이에게는 일을 맡기고 어리석은 이는 쉬게 하셨네. 함께 어울리는 썩과 명아주처럼, 내 죄인생활 즐긴다네. 속과 겉이 잘 어울리는 문장으론, 내 근심 풀어낼

종합해 볼 때, 柳宗元의 「答問」은 立破 대립의 강도를 높여 立破의 첨예한 대립을 조성하였고 문장의 흥미를 倍加 시켰으며, 다양한 장법을 활용하여 굴곡 있고 변화 있는 문장을 만들었다. 이는 「答客難」과 「解嘲」에 비해 크게 발전한 모습이다. 하지만 장법 활용에 있어 반복과 중복이 많고 단순한 문장의 흐름 속에서 지루하거나 산만해질 수 있으며, 因1因2因3果나 賓1賓2賓3賓4의 형태가 있어 장법 활용의 치우침과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4. 韓愈 「進學解」의 구도 분석과 특징

韓愈의 「進學解」 역시 立破法을 사용하고 있다. 「進學解」는 「국자박사의 훈화」→ 「학생의 비난」→ 「국자박사의 답변」의 3단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答客難」, 「解嘲」, 「答問」의 형태와 크게 다른 점이다. 「進學解」의 삼단 대화 중에 「학생의 비난」과 「국자박사의 답변」은 一問一答의 先立後破의 형태에 부합한다. 이러한 先立後破의 구도를 근거로 그 앞에 다시 「국자박사의 훈화」를 넣어 기존의 문답형식에 변화를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3단의 대화를 어떻게 입과로 구분해야 하는가? 「국자박사의 훈화」는 뒤에 나오는 「국자박사의 답변」과 동일한 논지이므로, 이 3단의 문장은 「破立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국자박사의 훈화」 부분을 보자.

①어느 날 아침, 國子先生이 太學에 들어가, 학생들을 불러 學館 앞에 세워 놓고 훈계하며 말했다. “학업은 부지런하면 精進되고 놀거나 태만하면 거칠어지며, 德行은 깊은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충대충하면 사라진다. 지금 명철한 황제와 현명한 재상이 모여 法令制度를 마련하여, 兇惡하고 간사한 이들을 제거하고 뛰어난 인재를 선발했다. ②그러니 자그마한 특기만 있어도 등용되었고,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발탁되었다. ③살

수 있다네. 그만이다, 그만이다, 그 무엇을 구하리오” 그러자 손님은 웃으면서 떠나갔다.(乃歌曰: “堯舜之修兮, 禹益之憂兮, 能者任而愚者休兮, 蹻蹻蓬藿, 樂吾囚兮. 文墨之彬彬, 足以舒吾愁兮. 已乎已乎, 曷之求乎.” 客乃笑而去) 앞의 책 『柳河東全集, 卷15』, 367쪽.

살이 뒤지고 파내어 때를 벗기고 빛을 냈으니 ④요행으로 선발된 자가 있을지언정, 어찌 재능 많은데 등용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⑤여러분은 자신의 학업이 精進되지 못함을 걱정하고, 관리가 명철하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 것이며, 德行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걱정하고, 관리가 공정치 못함을 근심하지 말라.”²⁰⁾

이것을 장법 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破	因	因	①어느 날 아침, 국자선생이 ~ 뛰어난 인재를 선발했다
		果	②그러니 자그마한 특기만 있어도 ~ 재주만 있어도 발탁되었다
		因	③살살이 뒤지고 파내어 때를 벗기고 빛을 냈으니
		果	④요행으로 선발된 자가 ~ 등용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果		⑤여러분은 자신의 학업이 ~ 관리가 공정치 못함을 근심하지 말라.

위와 같이 破의 부분은 단지 因果-因果를 사용하여 국자박사가 자신의 훈계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앞의 세 작품처럼 正反이나 抑揚을 통한 비판과 공격이 보이지 않는다. 이 단락은 국자박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훈계의 말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내용도 없다. 앞의 세 작품에는 없는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의도로 삽입한 것일까? 앞의 세 작품들은 모두 立에서 客의 입을 빌어 작가 자신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이 전후 맥락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지 못했다. 반면 「進學解」는 학생의 비난 앞에 「국자박사의 훈화」를 넣음으로써, 뒤에 오는 「학생의 비난」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면서 부자연스러움을 없애준다. 아울러 「국자박사의 답변」 역시 물 흐르듯 순차적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韓愈는 「국자박사의 훈화」를 넣어 구도적으로 보다 완전한 틀을 이루려고

20) “國子先生晨入太學, 招諸生立館下, 誨之曰: ‘業精於勤, 荒於嬉, 行成於思, 毀於隨. 方今聖賢相逢, 治具畢張, 拔去兇邪, 登崇峻良. 占小善者率以錄, 名一藝者無不庸. 爬羅剔抉, 刮垢磨光. 蓋有幸而獲選, 孰云多而不揚? 諸生業患不能精, 無患有司之不明. 行患不能成, 無患有司之不公.’” 韓愈撰, 馬其昶校注, 『韓昌黎文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45쪽.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생의 비난」 부분을 보도록 하자.

①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학생의 무리 속에 웃는 이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를 속이시는군요. ②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을 모신지 오래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입으로 『六經』을 끊임없이 읊조리시고, 손으로는 百家의 책을 쉬지 않고 펼쳐 보십니다. 사건을 기록할 땐 요점을 파악하시고, 논리를 펼치실 땐 현묘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많이 배워 얻으려고 하시고, 크고 작은 것 모두를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호롱불 켜서 밤으로 낮을 이으시며 일 년 내내 고생하시니, ③선생님은 학업 함에 근면하다 하겠습니까. ④異端을 물리치시고, 부처와 노자를 배척하시며, 儒學의 새는 틈을 보수하고 메우시어 심오한 이치를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까마득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고, 널리 수집하여 계통을 이으셨으며, 온갖 물줄기를 막아 동쪽으로 흐르게 하시고, 미처 날뛰는 물결을 되돌리셨으니, ⑤선생님은 儒家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 하겠습니까. ⑥진한 맛에 깊이 잠겨 꽃을 머금고 봉오리를 맛보며, 문장을 쓰신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위로는 『尙書』의 「虞書」, 「夏書」에서 광대하고 끝없음을 배우셨고, 『尙書』 「大誥」, 「盤庚」의 모호하고 난해함을, 『春秋』의 엄정함, 『左傳』의 과장됨, 『周易』의奇怪하면서도 계통이 있음과, 『詩』의純粹하고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아래로는 『莊子』·『楚辭』·司馬遷의 『史記』·揚雄·司馬相如를 배워, 선생님과 그들의 것은 비록 형태는 달라도 기묘함은 동일하다 하겠습니까. ⑦그러니 선생님의 문장은 안에서 넘쳐흘러 밖으로 내달린다 할 수 있습니다. ⑧어려서부터 배움을 알아 과감히 행동하셨고, 장성해서는 理致에 통달하시니 하신 일은 모두 事理에 맞았습니다. ⑨그러니 선생님은 사람됨이 완전하다 하겠습니까. ⑩그러나 선생님은 공적으로 남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⑪私的으로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⑫앞으로 얻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⑬움직일 때마다 비방을 당합니다. ⑭잠시 御史가 되셨지만 곧 남쪽 오랑캐 땅으로 귀양 가셨습니다. ⑮3년 동안 博士로 계셨지만 한가한 직책에 별다른 공로가 없었습니다. ⑯운명적으로 원수와 부딪쳐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⑰따뜻한 겨울에도 아이들은 춥다고 하고, ⑱풍년이 들었는데도 아내는 배고파 옵니다. ⑲머리는 벗겨지고 이빨은 다 빠져, ⑳이렇게 죽는다면 세상에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㉑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남을 가르치려 하십니까?”²¹⁾

21) “言未既, 有笑於列者曰: ‘先生欺余哉! 弟子事先生於茲有年矣. 先生口不絕吟於六藝之文, 手不停披於百家之編. 記事者必提其要, 纂言者必鉤其玄. 貪多務得, 細大不捐. 焚膏油以繼晷,

이를 장법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立	果		①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 선생님은 우리를 속이시는군요.
	揚	因	②우리가 여기서 ~ 일 년 내내 고생 고생하시니
		果	③선생님은 학업 함에 근면하다 하겠습니까.
		因	④異端을 물리치고 ~ 미쳐 날뛰는 물결을 되돌리셨으니
		果	⑤선생님은 儒家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 하겠습니까.
		因	⑥진한 맛에 깊이 잠겨 ~ 기묘함은 동일하다 하겠습니까.
		果	⑦그러니 선생님의 문장은 ~ 밖으로 내달린다 할 수 있습니다.
		因	⑧어려서부터 배움을 알아 ~ 일은 모두 事理에 맞았습니다.
		果	⑨그러니 선생님은 사람됨이 완전하다 하겠습니까.
	抑	因	⑩그러나 선생님은 공적으로 남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因	⑪私的으로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因	⑫앞으로 얻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因	⑬움직일 때마다 비방을 당합니다.
		因	⑭잠시 御史가 되셨지만 ~ 귀양 가셨습니다.
		因	⑮3년 동안 博士로 계셨지만 ~ 공로가 없었습니다.
		因	⑯운명적으로 원수와 부딪쳐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果	⑰따뜻한 겨울에도 아이들은 춥다고 하고
		果	⑱풍년이 들었는데도 아내는 배고파 옵니다.
		果	⑲머리는 벗겨지고 이빨은 다 빠져
		果	⑳이렇게 죽는다면 세상에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果			㉑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남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장법 구도를 보면 抑揚을 사용하여 먼저 국자선생의 장점을 설명하고 나중

恆兀兀以窮年. 先生之業可謂勤矣. 舐排異端, 攘斥佛老. 補苴罅漏, 張皇幽眇. 尋墜緒之茫茫, 獨旁搜而遠紹. 障百川而東之, 迴狂瀾於既倒. 先生之於儒可謂有勞矣. 沉浸醲郁, 含英咀華, 作爲文章, 其書滿家. 上規姚姒, 渾渾無涯. 周語殷盤, 佶屈聱牙. 『春秋』謹嚴, 『左氏』浮誇, 『易』奇而法, 『詩』正而葩. 下逮『莊』·『騷』, 太史所錄, 子雲相如, 同工異曲. 先生之於文, 可謂閎其中而肆其外矣. 少始知學, 勇於敢爲. 長通於方, 左右具宜. 先生之於爲人可謂成矣. 然而公不見信於人, 私不見助於友. 跋前踖後, 動輒得咎. 暫爲御史, 遂竄南夷. 三年博士, 冗不見治. 命與仇謀, 取敗幾時. 冬煖而兒號寒, 年豐而妻啼飢. 頭童齒豁, 竟死何裨? 不知慮此而反教人爲!”의 책 『韓昌黎文集校注』, 45-46쪽.

에 그 잘못을 비난하고 있다. 揚에서는 「학문(業)」, 「유학(儒)」, 「문장(文)」, 「사람됨(爲人)」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칭찬을 하였는데, 이는 「答問」에서 나온 「덕(德)」, 「이치(理)」, 「학문(學)」, 「문장(文)」의 구분과 매우 유사하다. 칭찬(揚)을 한 후에 다시 비판(抑)을 가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韓愈가 의도적으로 장법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칭찬(揚) 부분에는 「~했으니(因) ~했다(果)」의 先因後果의 형태를 모두 4회 반복했으나, 비판(抑) 부분에서는 7개의 원인을 먼저 나열하고, 나중에 4개의 결과를 나열하는 형태를 취했다. 다시 말해 揚은 因果因果의 형태이며 抑은 因因果果의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다. 만약 抑에서도 揚과 동일하게 先因後果를 취했다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어 단조로움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揚의 부분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길게 늘어뜨린 반면, 抑은 단문으로 짧게 여러 가지 단점을 제시하고 있어 揚抑의 과정 속에서 緩急의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비록 칭찬(揚)의 분량이 비판(抑)보다 많긴 하지만, 抑에서는 간략한 내용으로 7개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어 칭찬과 비판이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칭찬 속에 비판이 드러나고 비난 속에 칭찬이 섞여 있어 전체적인 비판의 기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장법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장법은 크게 「對立」과 「調和」의 장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因果, 凡目, 賓主 등은 「調和」장법에 속하며 陰柔의 풍격을 지닌다. 반면 正反, 抑揚, 立破처럼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장법은 「對立」장법에 속하며 陽剛의 풍격을 갖는다.²²⁾ 위에서 사용된 장법은 立破-因果-抑揚-因果로 「對立」과 「調和」의 장법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 단락인 破에서 더 잘 드러난다.

①선생이 말하였다. “오! 자네, 이 앞으로 나오게나. 큰 나무는 들보가 되고

22) “對立은 강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강건하고 광활하며 아름다운 느낌을 만들어 陽剛의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이에 반해 調和는 양자의 성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미하고 융합되며 잔잔하고 고요한 정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陰柔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因爲「對比」會形成極大的反差, 因此有強健, 闊達, 華美之感, 將使作品趨向於「陽剛」. 而「調和」則因質性之相近, 產生優美, 融洽, 鎮靜, 深沉等情緒, 自然會使作品趨向於「陰柔」)” 陳滿銘의 앞의 책, 349쪽.

가는 나무는 서까래가 되며, 枘栝과 짧은 기둥·지도리·문지방·빋장·설주가 각기 제자리를 찾아 집을 완성하는 것은 장인의 솜씨라네. ②또 玉札·丹砂·赤箭·青芝·牛溲·말불머슴·헌 북의 껍질들을 모두 모아 간직하고, 쓸 곳을 기다리며 버리지 않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라네. ③명백하고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고 잘하는 이와 못난 사람을 고루 등용하며, 다소 곳함을 좋다 여기고 탁월한 것을 뛰어난다 칭하며, 길고 짧음을 재고 비교하여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쓰는 것은 宰相의 지략이지. ④옛날에 孟子는 변론을 잘하여 孔子의 道가 그로 인해 드러났으나, 그는 천하를 周遊하다 마침내 길에서 늙어 죽었다네. 荀子는 正道를 지켜 儒家의 사상을 크게 넓혔지만, 비난을 피하여 楚나라로 도망가 관직을 잃고 蘭陵에서 죽었네. 이 두 儒者는 문장을 쓰면 경전이 되고, 행동을 하면 법칙이 되었으며, 무리 중에서 뛰어나 聖人の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어떤 시대를 만났는가? ⑤지금 나는 배움에는 근면했지만 ⑥계통이 없고, ⑦말은 많이 했으나 ⑧요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⑨문장은 특이하다 하나 ⑩실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⑪품행은 훌륭하나 ⑫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네. ⑬그러면서도 오히려 매달 월급을 받아쓰고, 창고의 곡식을 소비하네. ⑭아들은 발을 갈 줄 모르고 아내도 베를 짤 줄 모르지만, ⑮말을 타면 하인이 그 뒤를 따르고 편안히 집에 앉아 먹을 수 있다네. ⑯또한 조심조심 옛 방식만을 따르고 옛 책을 뒤져 문장이나 도독질한다네. ⑰그래도 명철하신 폐하께서는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宰相 또한 나를 내치지 않으시니 이 어찌 다행이 아니리오! ⑱움직이면 이내 비방을 받지만 ⑲그런 명성 또한 따라다니니, ⑳한가한 곳에 관직 하는 것도 나의 본분에 마땅한 것이리라. ㉑만약 봉급의 많고 적음을 불평하고 관직의 높고 낮음을 따지며, 제 자신의 능력을 망각하고 앞 사람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㉒이는 장인匠人을 보고 말뚝으로 기둥을 만들지 않는다고 꾸짖는 것이며, ㉓醫師에게 장수하는 약재로 昌陽을 썼다고 탓하며 豨薺를 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네.”²³⁾

23) “先生曰: ‘吁! 子來前. 夫大木爲杗, 細木爲桷, 榑欂侏儒, 椳闑扂楔, 各得其宜, 施以成室者, 匠氏之工也. 玉札丹砂, 赤箭青芝, 牛溲馬勃, 敗鼓之皮, 俱收並蓄, 待用無遺者, 醫師之良也. 登明選公, 雜進巧拙, 紆餘爲妍, 卓犖爲傑, 校矩量長, 惟器是適者, 宰相之方也. 昔老孟軻好辯, 孔道以明. 轍環天下, 卒老於行. 荀卿守正, 大論是弘. 逃讒於楚, 廢死蘭陵. 是二儒者, 吐辭爲經, 舉足爲法, 絕類離倫, 優入聖域, 其遇於世何如也? 今先生學雖勤而不繇其統, 言雖多而不要其中, 文雖奇而不濟於用, 行雖修而不顯於衆. 猶且月費俸錢, 歲靡廩粟. 子不知耕, 婦不知織. 乘馬從徒, 安坐而食. 踵常途之促促, 窺陳編以盜竊. 然而聖主不加誅, 宰臣不見斥, 茲非其幸歟! 動而得謗, 名亦隨之. 投閑置散, 乃分之宜. 若夫商賈賄之有亡, 計班資之崇卑, 忘己量之所稱, 指前人之瑕疵, 是所謂詰匠氏之不以杙爲楹, 而訾醫師以昌陽引年, 欲進其豨

이를 장법 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破	因	正	賓1	①선생이 말하였다. “오! 자네, ~ 장인의 솜씨라네.	
			賓2	②또 옥찰, 단사 ~ 의사의 재량이라네.	
			主	③명백하고 공정하게 ~ 宰相의 지략이지.	
		反		④옛날에 孟子는 ~ 그들은 어떤 시대를 만났는가?	
			抑	揚	⑤지금 나는 배움에는 근면했지만
				抑	⑥계통이 없고
				揚	⑦말은 많이 했으나
				抑	⑧요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揚	⑨문장은 특이하다 하나
				抑	⑩실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揚	⑪품행은 훌륭하나			
	正	揚	抑	⑫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네.	
			正	⑬그러면서도 오히려 매달 ~ 창고의 곡식을 소비하네.	
			反	⑭아들은 발을 갈 줄 모르고 아내도 베를 짤 줄 모르지만,	
			正	⑮말을 타면 하인이 그 뒤를 따르고 ~ 먹을 수 있다네.	
			反	⑯또한 조심조심 옛 방식만을 따르고 ~ 도둑질한다네.	
			正	⑰그래도 명철하신 폐하께서는 ~ 이 어찌 다행이 아니리오!	
			反	⑱움직이면 이내 비방을 받지만	
			正	⑲그런 명성 또한 따라다니니,	
	果		⑳한가한 곳에 관직 하는 것도 나의 본분에 마땅한 것이리라.		
主		㉑봉급의 많고 적음을 불평하고 ~ 허물을 지적한다면,			
賓1		㉒이는 匠人을 보고 ~ 꾸짖는 것이며			
賓2		㉓의사에게 장수하는 약재로 ~ 것과 같은 것이네.”			

전체적인 구도는 立破-因果-正反-因果/賓主-抑揚의 다양한 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韓愈는 장법 사용의 중복을 피하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抑揚 부분에서 자신에 대해 번갈아 가며 칭송과

“茶也.” 앞의 책 『韓昌黎文集校注』, 47-49쪽.

비난을 하고 있다. 이때 비난(抑)을 「근면함(勤)」, 「말(言)」, 「문장(文)」, 「품행(行)」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복하였다. 이는 柳宗元의 「答問」에 나온 「덕(德)」, 「이치(理)」, 「학문(學)」, 「문장(文)」과 앞의 「학생의 비난」 부분에서 나왔던 「학문(業)」, 「유학(儒)」, 「문장(文)」, 「사람됨(爲人)」의 기초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抑에서는 4개의 抑揚法을 사용하였으나 揚에서는 4개의 회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抑揚法 대신 正反法을 사용하였다. 이 또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두 번째는 賓主法을 사용한 부분이다. 맨 앞과 맨 뒤에 각각 賓主法을 사용하였다. 맨 앞에는 賓1賓2主의 형태로 앞에 있는 「장인 솜씨」와 「의사 재량」이 뒤에 있는 「재상 지략」을 꾸며주고 있다면, 맨 뒤에는 主賓1賓2의 형태로 앞에 있는 「재상 비난」이 뒤에 있는 「장인 비난」과 「의사 비난」의 수식을 받고 있는 형태이다. 이 역시 반복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앞의 賓主 사용에 있어 앞의 작품들이 보여주었던 지나친 賓의 사용이나 典故의 사용이 없어 정제된 형식과 깔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립」과 「조화」의 장법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對立」과 「調和」의 관점으로 장법 활용을 고찰해보면, 위에서 사용한 立破-因果-正反-因果/賓主-抑揚은 「對立」- 「調和」- 「對立」- 「調和」- 「對立」처럼 對立과 調和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굴곡 있고 변화 있는 문장 흐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陰柔와 陽剛의 서로 다른 성질이 어울린 다양한 풍격을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다른 세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進學解」는 앞의 세 작품이 사용했던 先立後破나 立破立破에 변화를 주어 破立破의 구도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안정된 구도 속에서 다양한 장법을 활용하였고, 기존의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중복을 피해 변화를 주어 굴곡 있는 문장 구도를 만들었다. 때문에 세 작품보다는 편폭이 짧지만 더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²⁴⁾

24) 네 작품의 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나오며

柳宗元の 「答問」은 二問二答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答客難」과 「解嘲」의 先立後破 혹은 立破立破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立破 장법의 활용에 있어서는, 立에서의 강한 비난을 통해 立破章法の 핵심인 강렬한 대립(針鋒相對)을 조성하여 「答客難」과 「解嘲」에 비해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凡目法 활용에 있어서 「凡目1目2目3」의 형태를 사용한다거나 「賓1賓2賓3賓4主」의 형태로 賓主法을 활용하는 등 장법활용의 偏重성과 不均衡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일한 패턴의 반복과 필요 없는 내용의 중복이 있으며, 과도한 典故 사용으로 인해 단조롭고 산만하다는 단점이 있다.

韓愈의 「進學解」는 기본적으로 「答客難」, 「解嘲」, 「答問」의 형태를 변형한 破立破의 행태를 만들어 立에서의 비난과 변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柳宗元の 「答問」에서 사용한 4회 반복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因果因果의 형태를 반복하지 않고 因因果果로 변화를 주거나 앞부분에 사용한 賓1賓2主를 변형한 主賓1賓2을 뒷부분에 사용하는 등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전체적으로 장법활용의 편중성과 불균형이 없이 정제된 형식 속에서 對立章法和 調和章法을 번갈아 사용하여 陽剛과 陰柔의 서로 다른 풍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법 활용에 있어서 韓愈의 「進學解」가 柳宗元の 「答問」보다 다소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그렇지만, 「答問」이 「進學解」보다 약 8년 앞서 창작되었²⁵⁾, 「進學

제목/내용	序	問	答	問	答	敷衍	總字數
「答客難」		140	762				902
「解嘲」	53	183	679	19	352		1,286
「答問」		187	113	4	517	53	874
「進學解」	109	316	317				742

25) 「答問」은 永貞元年(805)에 쓰여졌고, 「進學解」는 元和8年(813)에 쓰여졌다. 柳宗元지음, 오수형 외 옮김, 『柳宗元집2』, 서울: 소명출판, 2009, 86쪽. 韓愈撰, 馬其昶校注, 『韓昌黎文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45쪽.

解」의 변화는 다분히 「答問」에서 했던 柳宗元의 창신을 근거로 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만약 「進學解」가 먼저 나왔더라면, 유종원은 이를 근거로 더 완전한 구도의 문장을 창작했을 수도 있다. 다만 문장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進學解」는 확실히 「答問」에 비해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음이 확실하다.

韓愈는 고문창작에 있어 “진부한 표현을 제거한다(去陳言)”을 강조하였다.²⁶⁾ 때문에 표현 방법, 단어 선택, 제목 설정 등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법을 최대한 바꾸려는 노력을 보였다. 기존의 구도에 변화를 주고 중복을 피하려는 모습에서 韓愈의 “去陳言”의 노력이 문장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26) 「答李翊書」에서는 “처음에 三代·兩漢의 글이 아니면 감히 보지 않았으며,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면 감히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거처할 때는 무엇인가 잊은 듯했고, 길을 나설 때에는 무언가 빠뜨린 듯했으며, 골몰히 생각하듯 엄숙했고, 길을 잃은 듯 망연했습니다. 마음속의 것을 손으로 써내려 갈 때, 낡은 어투는 힘써 제거했지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始者非三代兩漢之書不敢觀, 非聖人之志不敢存. 處若忘, 行若遺, 儼乎其若思, 茫乎其若迷. 當其取於心而注於手也, 惟陳言之務去, 戛戛乎其難哉!)”라고 하였다. 앞의 책 『韓昌黎文集校注』, 170쪽.

參考文獻

- 김영문 외, 『문선역주』, 서울 : 소명출판, 2010.
- 柳宗元지음, 오수형 외 옮김, 『유종원집』, 서울 : 소명출판, 2009.
- 陳滿銘, 『章法學新裁』, 臺北 : 萬卷樓, 2001.
- 陳滿銘, 『章法學論粹』, 臺北 : 萬卷樓, 2002.
- 陳滿銘, 『章法學綜論』, 臺北 : 萬卷樓, 2003.
- 陳滿銘, 『章法學結構原理與教學』, 臺北 : 萬卷樓, 2007.
- 仇小屏, 『文章章法論』, 臺北 : 萬卷樓, 1998.
- 仇小屏, 『篇章結構類型論(上下)』, 臺北 : 萬卷樓, 2000.
- 仇小屏, 『深入課文的一把鑰匙』, 臺北 : 萬卷樓, 2001.
- 仇小屏, 『章法新視野』, 臺北 : 萬卷樓, 2001.
- 韓愈撰, 馬其昶校注, 『韓昌黎文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林紓, 『韓柳文研究法』, 臺北: 廣文書局, 1980.
- 柳宗元撰, 楊家駱主編, 『柳河東全集』, 臺北 : 世界書局, 1999.
- 羅聯添, 『唐代四家詩文論集』, 臺北 : 學海出版社, 1996.
- 王基倫, 『韓柳古文新論』, 臺北 : 里仁書局, 1996.
- 吳文治編, 『柳宗元資料彙編(上下)』, 北京: 中華書局, 2004.
- 蕭統編, 李善注, 『文選』, 臺北 : 華正書局, 1995.

Abstract

The Superiority of Han Yu's *Jinxuejie* over Liu Zong Yuan's *Dawen*: From the Perspective of Zhangfaxue, or Sentence Composition

KO Kwang-Min

Han Yu and Liu Zong Yuan, near contemporaries, were true rivals in Tang prose writing. Among their works, *Jinxuejie* by Han Yu and *Dawen* by Liu Zong Yuan are quite similar to each other in form and content as they both draw on Dong Fang Shuo's *Dake'nan* and Yang Xong's *Jiechao* from the Han Dynasty. Both works take the form of an apology and their sentence composition is structured after Lipolipo. However, in contrast to Liu's rather formulaic and simplistic Xianlihoupou style, Han Yu's *Jinxuejie* shows the uniquely natural and flowing style of Polipo by combining and reformulating Xianlihoupou and Lipolipo. In the end, in terms of sentence composition styl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Zhangfaxue, Han Yu's avoidance of excessive repetition and overlapping of simplistic compositional style found in Liu Zong Yuan's writing, and his alternative use of unity and harmony held in balance makes Han's writing superior to Liu's. Indeed, Han Yu's *Jinxuejie* demonstrates a fine realization of the compositional theory he developed in his *Quchenyan*.

Key words : Zhangfaxue, Dake'nan, Jiechao, Jinxuejie, Dawen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